

# 김학(金鑊:1572~1633)묘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 포에 관한 연구

송 미 경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연구원

## A Study on Men's coats in Early 17<sup>th</sup> Century based on the Excavated Costume of Kim, Hwak(1572~1633) Tomb

Mi-Kyung Song

Researcher, Curatorial Team,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7. 7. 6 투고)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n's coats in the early 17<sup>th</sup> century through the excavated costumes of Kim, Hwak(1572~1633)'s tomb. Kim, Hwak was a literary man with a high government positio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the early 17<sup>th</sup> century, there were many changes with the kinds and form of men's coats. From Kim, Hwak's tomb, there excavated 8 kinds of coats; *Sim-ui*, *Dan-ryung*, *Jik-ryung*, *Cheol-rik*, *Do-po*, *Chang-ui*, *Joong-chi-mack*, *So-chang-ui*, and they are 27 items. The characteristics of 17<sup>th</sup> century costumes are well seen from these coats.

Up to that period, *Cheol-rik* was worn as ordinary clothes, but from Kim, Hwak's tomb, there are 5 pieces of *Do-po*, and 15 pieces of *Joong-chi-mack*. This tells us that these items were widely worn after the mid-17<sup>th</sup> century.

Key words: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men's coat(남성 포류), *Cheol-rik*(철릭), *Do-po*(도포),  
*Joong-chi-mack*(중치막)

## I. 머리말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경기도박물관은 2001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에서 안동김씨 문온공파 직계공계 확(纓:1572~1633)의 부부합장묘를 이장하면서 수습한 복식을 기증받았다. 김확 합장묘에서 수습한 복식은 백한홍배를 부착한 단령을 비롯한 남자복식과, 배위 숙부인 동래정씨의 원삼을 포함한 총 111점이다.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유물은 이장이 끝난 후 경기도박물관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남녀 복식이 섞여 있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다.

김확의 묘에서 나온 것으로 분류한 남자 복식은 심의 1점·단령 2점·직령 1점·철릭 7점·도포 5점·창의 3점·중치막 15점·소창의 2점·저고리 3점·한삼 1점·배자 2점·바지 4점·복건 1점·버선 1켢레·신 1켢레·명목 1점이다. 김확 묘 출토복식으로 구분하였지만 수례지의(襪禮之衣)로 넣었을 여성복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가운데 남자 포류 8건 37점이 이 연구의 대상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첫째, 17세기 전기에 착용되었을 남자 포류의 종류를 살펴보고 둘째, 포류는 16세기 말기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으며 셋째, 김확 묘에서 출토된 포류의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자다.

17세기 전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복식의 형태와 종류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특히 복식의 형태에 있어서 안정기에 속하는 17세기 후기와 18세기로 넘어가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17세기 전기 복식 가운데 염습의 전체가 수습된 경우는 드물다. 이에 신분과 생활년이 확실한 김확의 복식 연구는 무연고 묘에서 출토되는 복식들의 시기를 파악하는 자료의 참고가 된다.

### 2. 피장자의 생존연대와 행적

김확(金纓)은 선조 5년(1572) 의금부도사 대섭(大涉)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정경(正卿)이고, 호는 금사(金沙)이다. 체격이 우람하고 기개가 뛰어

났다고 한다. 18세 되던 선조 22년(1589) 진사시에 합격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세자를 모시고 남쪽으로 피난했으며, 이후 1629년 상의원 정(尙衣院 正)을 거쳐, 철원부지사(鐵原府知使)를 지냈고, 1633년 7월에 졸했다. 청송군 심전(沈銓)이 의조부이며, 누이들이 허균(許筠)과 이수광(李睟光)에게 출가해 그들은 김확의 매부이다. 김확의 부인인 동래정씨는 명종 22년(1567)에 태어나 남편보다 5살 연상이었다. 우의정 정언신(鄭彦信)의 딸로 차분하고 말이 적었으며, 행실이 간결하다는 평을 들었다. 남편보다 2년 앞선 1631년 죽어 그 곁에 부장했다.<sup>1)</sup>

## II. 16세기 후기~17세기의 남자 포류(袍類)

김확은 선조 5년(1572)~인조 11년(1633) 동안 생존하여 61세로 졸하였다. 김확의 묘에서 출토된 17세기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16세기 말과 17세기가 몰년인 남자 포류의 출토현황은 <표 1><sup>2)</sup>과 같다.

<표 1>에서 살펴보면 16세기 후기부터 17세기 초까지 주로 착용된 남자 포류는 단령·직령·액주름·담호·철릭이었으나 17세기 전기가 되면 액주름과 담호가 사라지고, 철릭의 출토수량이 줄어들며, 도포·창의·중치막·소창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18세기까지 이어진다.

임진란을 겪은 이후인 17세기 전기에는 16세기와 비교하여 복식의 종류도 변화하지만, 복식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6세기의 단령과 직령·담호는 무의 모양은 같으나, 깃과 소매의 차이로 복식의 명칭이 구별된다. 이 시대 단령과 직령·담호의 무형태는 접음 사각형 무이다. 철릭의 주름은 고운 잔주름이 주를 이루며, 고름 바대 장식이 있는 것도 있다. 끈은 깃 포류인 직령과 담호·철릭의 깃은 이중깃이 다수를 차지한다. 옷고름은 끈모양처럼 좁고 짧게 두쌍을 달아 주었으며, 고리로 연결된 간접 부착형과 직접 부착형이 다양하게 혼용되었다.<sup>3)</sup>

특히 김확과 몰년이 10년 앞선 강대호(1541~

〈표 1〉 16세기 후반~17세기 출토 남자 포류

묘주 (생몰연대)	복식종류											주의	협수			
	단령	직령	담호	철릭	액주름	장유	숨포	중치막	도포	소창의	창의			심의		
점수																
정응두 <sup>4)</sup> (1508~1572)	1	2	7	23	1											
이언충 <sup>5)</sup> (1524~1582)		4	6	4	1											
신언식 <sup>6)</sup> (1519~1582)	1	1		3	1											
신여관 <sup>7)</sup> (1530년대~1580년대 추정)	1	3	3	10	1											
이석명 <sup>8)</sup> (1513~1583)		1	1	8	2				1							
벽진이씨 <sup>9)</sup> (?~1585)	1	1			4											
이응태 <sup>10)</sup> (1556~1586)	1	5		7	2											
심수륜 <sup>11)</sup> (1543~1589)	1	3	1	9	1	3										
정휴복 <sup>12)</sup> (1529~1604)	1	6	1	4	3											
최진, 최진부인 <sup>13)</sup> (16세기말추정)				1				1								
조경 <sup>14)</sup> (1541~1609)	3	1	2	3	3		1	1								
장기정씨 <sup>15)</sup> (1565~1614)								1	2	1						
강대호 <sup>16)</sup> (1541~1624)	3	1	3	8	5				2							
이응해 <sup>17)</sup> (1547~1626)	4			6		1		6	3		2					
김확 (1572~1633)	2	1		9				15	5	2	3	1				
임계백 <sup>18)</sup> (1598~1639)														1		
정광경 <sup>19)</sup> (1586~1644)									1							
문익신 <sup>20)</sup> (1556~1645)											1				1	
임경백 <sup>21)</sup> (1594~1657)									1		1					
김여온 <sup>22)</sup> (1596~1665)	2			2				10		1	1					
정양우(父) <sup>23)</sup> (1574~1647)																
정태제(子) (1612~1669)		2		2				21	2		2				2	
홍극가 <sup>24)</sup> (?~1670)								1	1							
이행익 <sup>25)</sup> (1636~1680)				3				2								
경주이씨 <sup>26)</sup> (1684)											2					
최원립 <sup>27)</sup> (1618~1690)	1			1				3		5	3				1	
홍우협 <sup>28)</sup> (1655~1691)	1	1		2				8		10	3				1	1
최속 <sup>29)</sup> (1638~1698)	1			1							1					

1624)묘의 출토 포류<sup>30)</sup>를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대호 묘의 출토 포류는 단령 3점·직령 1점·담호 3점·철릭 8점·액주름 5점·도포 2점이 수습되었고, 김확 묘의 출토 포류는 심의 1점·단령 2점·직령 1점·철릭 7점·도포 5점·창의 3점·중치막 15점·소창의 2점으로 두 묘에서 공통으로 수습된 포류는 단령·직령·철릭·도포이다. 그러나 강대호 묘에서 출토된 담호·액주름·도포는 16세기의 전형적인 담호·액주름·도포의 형태에서 17세기 후기의 중치막이나 도포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강대호 묘에서 출토된 철

릭 또한 16세기 후반의 철릭 형태가 많이 보인다. 강대호와 생몰년이 비슷한 이응해(1547~1626)묘의 출토 포류는 단령 4점·철릭 6점·장유 1점·중치막 6점·도포 3점·창의 2점으로 포의 형태로 보아 김확 묘의 출토 포류와 유사한 형태이다. 강대호·이응해·김확 묘의 출토 포류를 비교해 보면 김확의 물년대인 1630년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포인 도포·창의·중치막·소창의가 등장하고 형태가 안정화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표 2> 김학 묘 출토복식 포류의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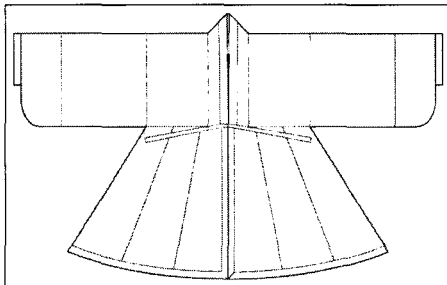
분류(점수)	항목	길이	화장	폭	고대	진동	수구	깃나비	깃길이
심 의 (1)		135	118	90	22	51	28.5	11	124
단령 (2)		134~137	117.5~127.5	56~58	19~22	30.5	25.5~29.5	5~5.5	114~115
직령 (1)		131	117.5	60	19	29.5	46	13	혜손
철릭 (9)		133.5~135	115~126.5	55~63	18~21	28.5~33	18~23.5	12~13	99~108
도포 (5)		134.5~138	115~130	58~61	18~20	29~35	18.5~21	11.5~13	97~100.5
창의 (3)		132.5~135	109.5~114	55~66	19~20	29~29.5	19~21	11~12.5	101.5~104
중치막 (15)		128~136	98.5~120	54~72	18~20	29~33	17.5~21.5	10~12	95.5~106
소창의 (2)		125~127	108~109	58~60	19~20	30~33	20~23	10.5	92.5~96

\* 치수(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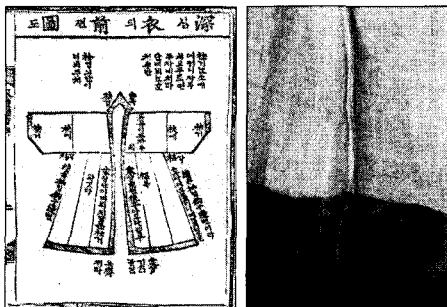
### Ⅲ. 김학 묘 출토 남자 포류<sup>31)</sup>

김학 묘의 출토복식 중 포류는 심의 1점·단령 2점·직령 1점·철릭 7점·도포 5점·창의 3점·중치막 15점·소창의 2점으로 총 38점이다. 이들 포류의 치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 1. 심의



<그림 1> No. 6509 심의



<그림 2> 가례언해 심의도 <그림 3> 심의 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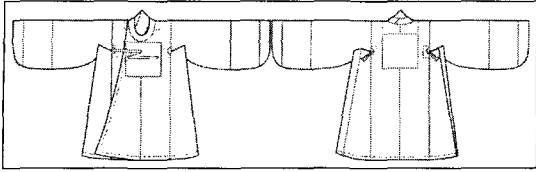
김학 묘에서는 습용(襲用)의 모시로 만든 홑 심의 1점(No. 6509)이 대(帶)와 함께 수습되었다(그림 1). 깃과 도련·수구에는 청색의 무문단으로 된 연(緣)이 있고, 깃은 대금형(對襟形)이며 하상(下裳)은 12폭이다.

이 심의는 1632년 발간된 『가례언해(家禮諺解)』의 심의 해설(그림 2)<sup>32)</sup>과 바느질법이 동일하다. 특히 심의의 해석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속임구변(續衿鉤邊)에 해당하는 상(裳)의 양옆 술기가 겹으로 드러나 있다(그림 3). 『가례언해(家禮諺解)』에 실려 있는 심의와 차이는, 옷을 여몄을 때 가례언해의 심의는 앞에 두 폭이 겹쳐지고, 김학의 심의는 옷고름이 끝에 달려있어 마주보게 여미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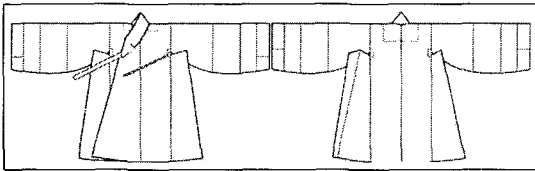
#### 2 단령

김학 묘에서 수습된 단령은 2점이다. 1점(No. 6507)은 아청색 겹단령(그림 4)으로, 겹옷인 단령과 속옷인 직령을 각각 홑으로 만들어 어깨와 무에서 패어 겹단령으로 만들었다. 이 옷은 무를 뒤로 보내어 접어 염(殮)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한다. 속옷인 직령(그림 5)의 깃은 짧은 당코깃에, 넓은 동정이 달려있다. 이 단령에는 가로 38cm, 세로 34cm의 금사 백한(白鵬)흉배가 가슴과 등에 달려 있다.

또 다른 단령 1(No. 6511)점은 사면교직(絲綿交織)으로 만든 홑단령이다. 특히 앞길 겨드랑이 바대 위에 긴 고름이 있는데, 대를 고정할 때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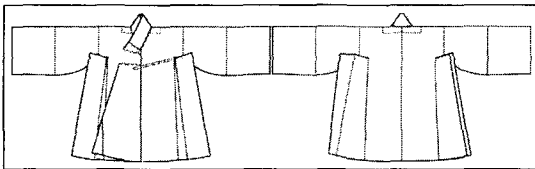
〈그림 4〉 No. 6507 단령



〈그림 5〉 No. 6507 단령 내 직령

단령의 무와 소매의 형태는 2점 모두 같다. 무는 넓은 사각무로 끝이 뾰족하며 앞, 뒤 무의 크기가 차이가 있으며 무를 고정된 단추는 없다. 소매는 진동에서 경사지게 나갔다가 수구 끝에서 둥글어지는 두리소매 형태이다. 단령에는 옷고름이 달려 있으며, 깃에는 매듭단추가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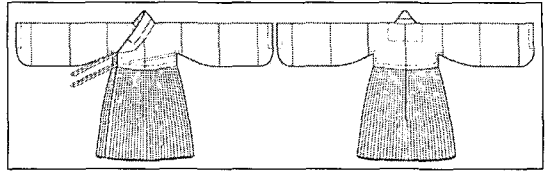
### 3. 직령



〈그림 6〉 No. 6508 직령

세주(細紬)로 만든 홑 직령 1점(No. 6508)〈그림 6〉으로 옷고름과 대(帶)고리가 있다. 깃은 곧은 깃이며, 깃 나비와 비슷한 동정이 있어 받침옷으로 사용된 직령임을 알 수 있다. 무는 끝이 뾰족한 사각형으로 무를 길에 고정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무의 형태는 No. 6507 단령과 같은 형태이다. 소매의 형태는 진동에서는 사선이나 수구로 갈수록 넓은 통수이다. 이 직령 깃의 끝은 훼손되어 깃 모양은 알 수 없다. 안깃의 끝에는 옷고름이 달려 있다.

### 4. 철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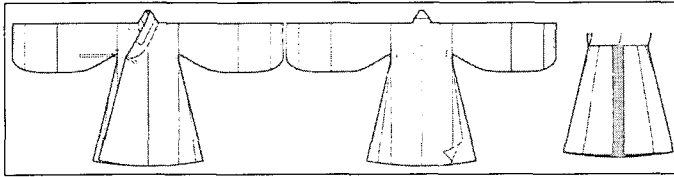


〈그림 7〉 No.6519 철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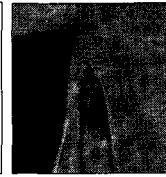
김확 묘에서 철릭은 9점이 수습되었다(그림 7). 겹철릭 2점(No. 6518·6521)과 홑 철릭 7점(No. 6517·6519·6520·6522·6523·6524·6558)이다. No. 6521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름과 동정이 달려 있다. No. 6521은 동정과 고름은 달지 않고 도련과 섶과 주름 위를 긴 실로 시침한 것을 미루어 보아 옷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철릭의 옷고름은 1쌍으로 여몄고, 상의와 하상의 비율은 1:1.9~2.1이다. 철릭의 주름은 나비 2cm 내외의 외주름[knife pleats]이나, 뒷중심에서 서로 마주보게 주름을 잡았다. 철릭의 용도는 No. 6522·6523은 습의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하며, 나머지 철릭은 보공용이며, 특히 No. 6558 철릭은 상의와 하상으로 분리하여 횡으로 접어 보공으로 사용하였다.

### 5.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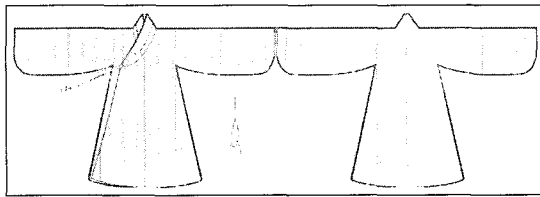
도포는 5점(No. 6512·6513·6514·6515·6516)이 수습되었다. 홑도포 2점(No. 6515·6516)과 겹도포 3점(No. 6512·6513·6514)이다. 소재는 1점이며 대부분이 색상이 있는 옷감을 사용하였다. 이는 인조(仁祖)의 장폐기록에 다양한 색 도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3)</sup> 김확 묘에서 수습된 도포(그림 8)의 특징은 안자락을 뒷자락에 고정하는 다양한 방법에 있다. 겹도포 3점은 안자락을 뒷자락에 직접 고정하여 겹에서 고정된 상침이 보인다. 홑도포인 No. 6515는 한판(汗版)<sup>34)</sup>이 없는 대신 안자락을 고정하는 바대가 있고, No. 6516은 어깨바대에 한판이 연결되어 있다. 안자락의 트임 간격은 7cm~31cm까지 다양하다. 안길과 뒷자락을 연결하는 진동의 트임 방지와 장식의 목적인 연봉매듭(그림 9)이 달려



<그림 8> No. 6515 도포



<그림 9> 연봉매듭



<그림 10> No. 6538 창의



<그림 11> 연봉매듭

것은 3점 있다. 겹도포 3점은 모두 길과 무의 솔기 연결을 안쪽에서 3~4뼘 상침으로 하여 겉쪽에서 땀이 떠 있다. 이는 다른 옷으로 변형이 가능한 마름질이며, 마치 주름[tuck]을 잡은 듯하다.

No. 6538은 길과 셔·등·소매에 이장시 훼손된 부분이 매우 많아 습이나 소림에 사용된 옷으로 추정할 수 있다.

## 6. 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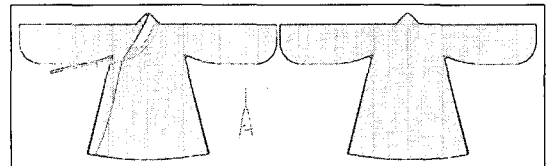
남자 포류의 일종으로 중치막과 비슷하나, 옆 자락에는 트임이 없고, 뒷자락에 트임이 있는 넓은 소매의 옷이다.

창의는 흔히 '대창의'라고도 하는 옷으로 임란 이후 남자들이 즐겨 입었던 포 중의 하나이다. 문헌의 기록을 보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상례에는 초록 겹창의를 수의용 심의 받침옷으로 사용하였으며 소림에 남색·옥색·백색 창의, 그리고 대령에 역시 백색과 옥색 창의가 사용되었다.<sup>35)</sup>

김확의 묘에서는 창의가 3점<그림 10> 수습되었다. 1점(No. 6526)은 아청색 세주, 2점(No. 6537·6538)은 자주색 면주로 된 겹 창의이다. 3점 모두 옷고름과 동정이 있으며, 뒤트임에 훼손을 방지하고 자락을 고정시키는 연봉매듭 장식<그림 11>이 있다. 소매의 모양은 진동에서 사선으로 가면서 넓어지다가 수구로 가면 둥근 두리소매이다. No. 6526과 No. 6537은 거드랑이에 접은 삼각무가 있다. No. 6537과

## 7. 중치막

현재 확인된 기록 중에는 『묵재일기(默齋日記)』의 1553년의 '중치막'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1580년대 정도로 추정되는 순천김씨 묘 언간에는 언문으로 '둥치막'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오희문의 『쇄미록(瑣尾錄)』에도 1592년과 1597년의 기록에서 확인된다.<sup>36)</sup> 중치막 유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최근 보고된 16세기 말로 추정되는 최진의 부인 묘 유물 중에서 확인되었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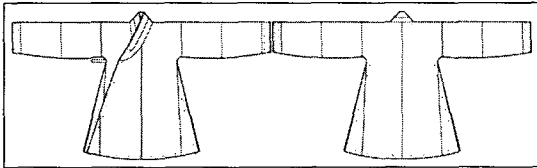
<그림 12> No. 6525 중치막

김확 묘에서 출토된 표류(袍類)는 38점이 있는데, 중치막은 15점이나 되므로 17세기 초중반의 대표적 남성 일상복이었던 것 같다. 김확 묘 출토

중치막<그림 12>의 구성은 겹 중치막 2점(No. 6529·6530), 솜누비 중치막 3점(No. 6525·6527·6541), 솜 중치막 10점(No. 6528·6531·6532·6533·6534·6535·6536·6539·6540·6543)으로 대부분 솜옷이다. 이는 염습(殮襲)에 보공을 위해 솜옷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재는 주(紬) 종류를 사용하였다. No. 6530 중치막은 길 양쪽의 무 바느질이 특이한데 길의 안에서 3땀 상침으로 길과 무, 무의 결마기를 연결하여 길 중심으로 주름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무의 구성법은 겹도포 3점에서도 확인된다. No. 6541 솜누비 중치막은 겨드랑이에 접은 삼각무가 있다.

#### 8. 소창의

소창의는 중치막과 거의 같은 모양이나, 옷 길이가 중치막에 비해 조금 짧고, 중치막의 소매통 나비가 넓은 것에 비해 소창의는 소매통이 좁다.



<그림 13> No. 6542 소창의

김학 묘에서 출토된 소창의<그림 13>는 2점(No. 6542·6555)으로, 소매모양으로 보면 중치막에서 17세기 후기의 소창의로 가는 중간 형태라 생각되어, 소창의로 분류하였다. 소매 모양은 중치막의 소매통이 33~43.5cm 인 것에 비해 소창의는 29~32cm로 짧아 17세기 후반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직선형 배래로 가는 과정에 있다. 길이와 옆트임도 중치막보다 짧다. 양옆의 트임에는 연봉매듭이 달려 있다.

#### IV. 김학묘 출토 포류의 조형적 특성

1. 구성을 보면 심의는 1점에 홀이며, 단령은 2점으로 홀 1점·겹 1점, 직령은 홀 1점, 철릭은 9점

로 홀 7점·겹 2점이며, 창의를 3점 모두 겹이다. 도포는 5점으로 홀 2점·겹 3점이고, 중치막은 15점으로 겹 2점·누비 3점·솜 10점, 소창의는 솜 2점이다. 38점 가운데 홀옷은 11점으로 31%이며, 겹옷은 11점으로 28.9%, 누비는 3점으로 7%, 솜옷은 12점으로 31%이다. 누비는 중치막에서만 사용되었고, 솜옷 또한 중치막과 소창의에 사용되어 이 두 옷이 보온을 위한 평상복임을 알 수 있다.

2. 옷감의 폭은 30~38cm 내외의 주(紬)와, 29.5~62.5cm의 초(綃)가 사용되었고<sup>38)</sup>, 대부분 유색(有色)이다. 부장상태에서 화학적 변화로 인한 물성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다갈색, 자색, 그리고 쪽염을 이용한 아청색 등의 색상이 많다.

3. 깃은 단령과 직령 2가지로 구별이 된다. 깃나비는 <표 2>에서 보듯이 소창의는 10.5cm, 중치막은 10~12cm, 창의는 11~12cm이다. 깃길이는 단령을 제외한 곧은 깃의 포류가 97~108cm 내외이며, 소창의가 92.5~96cm이다. 깃의 형태는 겹깃은 17세기 후기 이후 정형화되는 등근 칼깃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칼깃이나, No.6507 단령의 속옷인 직령은 깎은 당코깃이다. 안깃은 목판깃으로 직령, 도포, 철릭은 완전 내어 달린 형이며, 창의 2점은 완전 내어 달린 깃, 1점은  $\frac{1}{2}$  내어 달린 깃이다. 중치막은 완전 내어 달린 형이 3점, 그 외는  $\frac{1}{2}$  정도 내어 달린 깃 형태이다. 소창의는 2점 모두  $\frac{2}{3}$  내어 달린 깃 형태이다.

4. 동정의 나비는 직령은 12cm, 철릭은 6.5~8.5cm, 도포 6.5~8.5cm, 창의 6.5~8cm, 중치막 5~8cm, 소창의 6~7cm로 깃 나비와 동정의 비율은 평균 1:0.6이다.

5. 단령과 직령의 무는 복식의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단령과 직령의 무는 위 나비 13.5~19cm, 무 길이 102~108cm, 앞뒤 무 나비가 3.5~5.5cm 차이가 있고, 접음 사각형무로 끝이 뾰족하며, 뒷길에 무를 고정하지는 않았다.

곧은 깃 포류는 길 양 옆에 사다리꼴 무가 달려고, 그 옆에는 작은 접음 삼각무가 있는 옷도 있다. 접음 삼각무가 있는 옷은 창의, 중치막이다. 겹감에 접음 삼각무가 없는 옷이라도 안감은 접음 삼각무

를 달았다.

6. 옷고름은 겹고름은 길과 같은 감으로 만들거나, 자색으로 만들어 달았으며, 속고름은 거친 주(紬)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령은 매듭단추와 고리를 이용하여 깃을 고정하고 섶에는 단령 길과 같은 옷감으로 고름을 달았다. No.6511 사면고직 홀 단령은 앞뒤길 양쪽에 대(帶)를 고정하는 긴 고름이 있다. 단령의 속옷 직령에도 고름이 있어, 각각의 옷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릭은 겹고름이 2쌍 달렸는데, 1개는 겹섶과 깃에 걸쳐 있고 1개는 섶 하단부에 있다. 철릭의 겹고름은 나비 2.5cm 내외 길이 41~59cm로 평균 50cm 정도이며, 1점만 제외하고 길과 다른 자색의 옷고름이다. 도포 2점의 옷고름은 길과 같은 동일한 감이나, 3점은 자색이다. 겹고름은 나비 2.5cm 내외 길이 37~51.5cm이며 시접은 모두 아래로 꺾었다. 창의 3점은 모두 길과 같은 감으로 고름을 만들었으며 나비 2~2.5cm, 길이 44~59cm이며 시접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중치막은 고름이 달려 있는 13점 가운데 길과 다른 자색으로 단 것이 2점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길과 같은 옷감을 사용하였다. 중치막 고름의 치수는 나비 2~3cm, 길이 33~53cm이며 시접의 방향은 1점을 제외하고 모두 아래로 보냈다. 소창의 고름은 모두 길과 같은 감을 사용하였고, 고름나비는 2.3cm, 길이 36cm와 43cm이며 시접의 방향은 아래로 보냈다.

7. 트임이 있는 옷은 단령과 직령·창의·중치막·소창의이다. 도포의 안자락 사이의 간격은 7~31cm로 다양하며, 안자락의 길이 즉 트임의 길이는 96~104cm이다. 창의는 뒷길 중심에 65.5cm 내외 길이로 트임이 있어 옷 길이와 트임의 비율은 1:0.51~0.56cm 정도이며 트임에는 모두 연봉매듭이 있다. 중치막의 옆트임은 68~76cm로 옷 길이와 트임의 비율은 1:0.53~0.55 정도이며 15점의 중치막 가운데 13점이 트임에 연봉매듭이 있다. 소창의 옆트임은 58~61cm로 옷 길이와 트임의 비율은 1:0.46~0.48 정도이다.

8. 포류의 옷 길이는 125~138cm(표 2 참조)이다. 심의를 제외한 옷 길이와 진동의 비율은 평균

1:0.22이며, 옷 길이와 화장의 비율은 1:0.86, 진동과 수구의 비율은 1:0.65이다.

소매의 형태는 진동에서 소매길이의 1/3 정도는 급격한 사선을 이루고 그 이후는 소매통의 길이를 유지하다가, 수구 가까이에서 둥글어지는 두리소매로 진행되는 모양이다. 소매통의 평균길이는 단령 46.5cm, 직령 47cm, 철릭 44.6cm, 도포 46cm, 창의 39.3cm, 중치막 37cm, 소창의 30.5cm이다.

9. 바느질법은 싹술·박음질·흠질·공그르기·시침질이 사용되었으며, 솔기의 시접은 싹술과 통술·흠질로 처리하였다. 직령의 배래는 시접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흠질로 처리하여 단령의 속옷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솜옷이나 겹옷은 안감이나 솜을 고정하기 위하여 도련이나 가장자리를 3~4땀 상침하여 장식의 역할도 겸하였다. 도포(No. 6512·6513·6514)와 중치막(No. 6530)의 양쪽 무는 마름질하지 않고 연결된 상태에서 시접을 넉넉히 둔 후 골로 접어 그 위를 3~4땀 상침하여, 다음 바느질 때 창의로 변형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바느질은 겹에서 볼 때 마치 주름[tuck]을 잡은 느낌을 주어 현대 복식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름의 고정먼저 솔기를 박음질로 고정한 후 꺾어서 그 위에 상침을 하였다. 길과 섶을 박을 때는 나비의 1/3 가량을 접어 달아 현대에 고름이 달리는 부분을 짚아 주는 원리와 같다.

## V. 맺음말

경기도박물관 소장품인 17세기 전기의 인물인 김확(1572~1633)묘의 출토 복식 가운데 남자 포류인 심의 1점·단령 2점·직령 2점·철릭 9점·도포 5점·창의 3점·중치막 15점·소창의 2점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는 습(襲)의 상복(上服)으로 착용되었으며, 상의 4폭 하상 12폭으로 구성되었고, 하상의 양옆 솔기는 겹으로 드러나 있는 '속임구변(續衿鉤邊)'을 표현하였다.

둘째, 단령은 2점이 수습되었는데, 금사백한 흥배



가 부착된 흑단령은 겹단령으로, 끝이 뾰족한 사각형 무가 달려 있다. 겹단령은 겉옷인 단령과 속옷인 직령이 독립된 상태로 만들어져 깃과 무의 상단을 꿰어 고정하여 1벌로 구성되었으며, 직령의 깃은 깎은 당코깃이다. 사면교직으로 만들어진 홀단령은 앞뒤 길에 대를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긴 옷고름이 세로로 달려있다. 직령은 1점으로 홀직령이며, 깃 부분이 훼손되어 깃 모양은 알 수 없으며 수구도 넓고, 동정도 깃 나비와 같은 모양으로 독립된 옷이라기보다는 단령의 받침옷 용도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철릭 9점이 수습되었다. 철릭의 형태는 상의하상의 비율은 1:1.9~2.1 정도이며 주름은 나비 2cm 내외의 외주름[knife pleats]으로 치마의 뒷 중심 부분에는 주름을 마주 보게 잡아 양쪽 방향으로 주름이 나간다. 옷고름은 1쌍이 달려 있다.

넷째, 도포는 5점으로, 홀도포와 겹도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자락을 뒷자락에 고정하는 다향한 방법이 사용되어 도포의 바느질방법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창의를 3점 가운데 2점은 겨드랑이에 접음삼각무가 있고 1점은 없으나, 안감에는 접음삼각무가 있는 형태로 바느질되어 있다. 창의 특징인 뒤트임은 65.5cm 내외로 옷 길이의  $\frac{1}{2}$  정도이며 뒤트임에 연봉매듭이 있다. 중치막은 15점인데 옆트임 길이는 68~76cm로 전체길이 128~136cm의  $\frac{1}{2}$  정도보다 길어 창의보다 트임의 길이가 길다. 중치막 15점 가운데 겨드랑이에 접음삼각무가 있는 중치막은 솜누비 중치막 3점을 포함하여 5점이다. 중치막 가운데 13점에는 트임에 연봉매듭이 있다. 소창의는 2점이 수습되었다. 중치막에 비해 옷 길이도 2~9cm 정도 짧으며, 옆트임의 길이도 58~61cm로 중치막의 옆트임 길이 보다 짧다.

16세기 후기와 17세기 전기의 복식과 비교할 때, 공통적으로 수습된 포류는 단령과 직령 철릭이나 형태에 있어 변화가 있다. 17세기 이후 단령과 직령의 무 형태가 변화하였으며, 철릭은 상의하상의 비율과 치마 주름 양식도 변화한다. 17세기 전기 이후

창의와 중치막·소창의가 새롭게 등장해 하고 도포는 이응해(1547~1626) 묘에서부터 수습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17세기 중기부터 착용이 일반화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철릭은 김확 묘의 출토 포류에서 23%를 차지하며, 중치막이 39.5%를 차지한다. 16세기말의 출토 포류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철릭이었으나 17세기에는 중치막이 이를 대신한다. 특히 중치막은 외출복으로 착용하고 품이 넓은 솜옷이 많기 때문에 염습과정에서 많이 수습되는 것 같다.

17세기 전기 남자 포류의 특징적인 변화는 품이 좁아지며, 소매 모양이 변화되는 것이다. 특히 17세기 전기 소매의 형태는 진동에서 급하게 경사지며 넓어지고, 수구로 갈수록 완만한 두리소매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창의를 제외한 모든 포류에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 깃 또한 16세기 후기에 보이는 이중깃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17세기 후반의 둥근 칼깃보다는 날카로운 칼깃이다. 겨드랑이의 접음삼각무는 창의와 중치막에서 남아 있으며 철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어, 겨드랑이 삼각무 또한 17세기 전기 남자 포류의 변화요소 중의 하나이다. 누비옷은 중치막에서만 사용되었다. 옷고름은 포류와 다른 색상인 자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포의 트임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연봉매듭 장식이 있는데, 옷과 동일한 색상보다 자색을 더 많이 사용하여 장식과 실용성을 겸하였고 미적 감각이 돋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김확(1572~1633)묘 출토 포류는 17세기 전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며, 이와 같이 구체적인 치수와 형태의 연구를 통하여 무연고분묘의 복식이 출토되었을 때 연대를 추정하는 데 조 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김성환 (2007). 금사(金沙) 김확(金爨)과 숙인(淑人) 동래정씨의 행력.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pp. 56-61.
- 2) 이 표는 이은주 (2003). 동래정씨 흥곡공 일가 남자 묘에서 출토된 복식류.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p. 164를 참고하여 추가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3) 박성실 (2006). 출토복식을 통해보는 임진왜란 이전 남녀복식의 조형적 특징. 檀國大學校 石叟善紀念 民俗博

- 物館. 韓國服飾, 24, pp. 99-131.
- 4) 朴聖實, 高富子 (1991). 高揚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考. 韓國服飾, 8, pp. 45-84.
  - 5) 박성실 (2002). 서울시 중계동 출토 星州李氏 大司憲公 彦忠(1524~1582)墓 복식고찰. 韓國服飾, 20, pp. 89-143.
  - 6) 고부자 (1999). 일영 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韓國服飾, 17, pp. 41-84.
  - 7) 위의 책, pp. 41-84.
  - 8)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이석명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박물관.
  - 9)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29-317.
  - 10)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pp. 212-225.
  - 11)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 12) 박성실, 고부자 (1989). 성남출토 동래정씨 출토유물에 관한 소고. 韓國服飾, 7, pp. 123-153.
  - 13) 이은주, 하명은, 안태현 (2007). 16세기 후반 전주최씨 일가 묘 출토복식의 사료적 가치. 복식문화, 10(1), pp. 155-171.
  - 14) 서울역사박물관 (2003). 풍양조씨 기증 조경묘 출토유물의.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15)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포항 내단리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 박물관.
  - 16) 고부자 (2005). 경기도 파주 출토 旆州姜氏(大虎, 1541~1624) 유물. 韓國服飾, 23, pp. 39-119.
  - 17) 충주박물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 충주박물관.
  - 18) 장인우 (1998). 임경백, 임계백 출토복식. 年報, 7, 청주: 충북대학교, pp. 73-132.
  - 19) 경기도박물관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용인: 경기도박물관.
  - 20) 심부자, 전해숙 (1986). 文益新墓의 出土服飾. 服飾, 10, pp. 81-90.
  - 21) 장인우 (1998). 앞의 책, pp. 73-132.
  - 22)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길짐승 흥배와 함께한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 23) 高富子, 朴聖實 (1990). 驪州 出土 東萊鄭氏(思庵公派) 遺物 小考. 韓國服飾, 8, pp. 71-125.
  - 24) 안동대학교 박물관 (1996). 안동지역전통복식. 안동: 안동대학교.
  - 25) 강원대학교 박물관 (1996). 博物館誌, 제3호. 춘천: 강원대학교 박물관.
  - 26) 안명숙 (2001). 17세기 여자 출토복식의 일례. 복식, 51(4), pp. 5-14.
  - 27)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편 (2006).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28) 김명숙 (1993). 洪禹協 墓 出土 17世紀 服飾 論巧. 청주: 충북대학교 박물관.
  - 29) 박성실 (1996). 華城 鳩浦里 出土服飾 小考. 檀國大學 校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韓國服飾, 14, pp. 49-98.
  - 30) 고부자 (2005). 앞의 책, pp. 39-119.
  - 31) 이하 No. 는 경기도박물관 소장유물등록번호이다.
  - 32) 申湜(1632). 家禮諺解 (홍문각 영인본). pp. 9-11. 圖-2a-, 圖-2b-, 圖-3a-.
  - 33) 정말숙 (2005). 조선시대 왕의 엄습의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pp. 43-47.
  - 34) 이은주 (1998).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 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20. “한판은 어깨바대가 등까지 길에 연장되어 내려와서 앞길의 무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 35)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앞의 책, pp. 64-65.
  - 36) 위의 책, p. 68.
  - 37) 이은주, 하명은, 안태현. 앞의 책, pp. 163-164.
  - 38) 조효숙, 이은진 (2007). 김확 합장묘 출토직물 연구.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pp. 116-119.